

영화 <불온한 당신>과 <꿈의 제인>에 나타난 성소수자에 관한 한국사회 문화다양성의 수용성 제고

노승인

(부산외국어대학교)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 2.1 성소수자(Sexual minority) 개념
 - 2.2 성소수자에 대한 선행연구 및 인식
3. 영화에 나타난 성소수자에 대한 한국사회의 시각
 - 3.1 동성애자 : 영화 <불온한 당신>
 - 3.2 트랜스젠더 : 영화 <꿈의 제인>
4. 성소수자에 대한 수용성 제고
 - 4.1 담론
 - 4.2 교육
 - 4.3 법·정책
 - 4.4 종교
5. 결론

<Abstract>

Roh Seung In. 2018. 1. 15. **The Enhancement of Multicultural Acceptance of Korea Society on Sexual Minority Appearing in the Films, <Troublers> and <Jane>**,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1, 30-52. In this thesis, I examined the

various absurdities, prejudices, discrimination currently undergoing in Korea society through Korean films of representing sexual diversity <Troublers> and <Jane>. Although the perception of sexual minorities is gradually improving, Korean still has a high negative perception about it among the members of society. Furthermore, the possibilities legislating an independent law for same sex couples in other to granting legal protection to them are not high.

As a way of promoting a more positive view of Korean, providing adequate protection for LGBTQIA in Korea society, I presented it from the view of education, law and policy, and religion. The reasons for it are because the members of the societies agree that the human rights of sexual minorities should be respected. To erase the shadows of discrimination against sexual minorities, educating prospective Korea society about the complexities of sexual orientation should be a key component of multi-cultural education. we live that changing times demanded a more flexible diversity and acceptance.**(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ey Words] discrimination, prejudices, sexual minorities, independent legislation, LGBTQIAH, human rights.

1. 서론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과 더불어 사회적소수자에 대한 인권 문제도 점차 주목을 받고 있다. 성(性)소수자의 권익 보호 수준은 곧 해당 국가의 인권 보장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만큼 성소수자 문제는 인권 문제의 뜨거운 이슈들 중 하나이다. 과거와는 다르게 성소수자가 당당하게 자신의 성(性) 정체성¹⁾을 밝히는 경우가 많아졌고, 퀴어 문화 축제가 열리는 등 성소수자의 인권을 인정하고 보

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우리사회에서도 성소수자는 더 이상 감출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동성애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여 함께 생활하고 있는 동성커플에게 혼인법을 적용하여 법적인 보호를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사회 구성원들이 동성커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한 입법부에서 성소수자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들을 위한 사회적 이해가 확산되고는 있지만 성소수자들의 삶의 고뇌는 사회의 편견과 무관심 속에 여전히 묻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상의 눈에는 불온한 삶을 살아왔지만 자신의 선택 앞에 당당한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그린 두 영화를 바

1) 본고에서 사용하는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성적지향이란, 성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어떤 성별에 이끌리는지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성적 지향에 따른 정체성 범주는 같은 성별에 이끌리는 동성애자(게이, 레즈비언), 다른 성별에 이끌리는 이성애자, 남녀 두 성별에 대해 이끌리는 양성애자(바이섹슈얼)로 통상 분류한다. 그러나 성별정체성은 반드시 남성 혹은 여성으로만 구별될 수 없다는 지평에서 다양한 성적 지향을 지칭하는 범주들 또한 존재한다.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이 스스로 인식하는 자신의 성별을 말한다. 성별정체성은 생물학적 성별과 일치할 수도,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후자를 일컬어 성전환자 또는 트랜스젠더(Transgender)라고 한다. 생물학적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사람을 트랜스젠더 여성(male to female, 약칭 MTF),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났으나 스스로를 남성으로 인식하는 사람을 트랜스젠더 남성(female to male, 약칭 FTM)이라고 한다. 그러나 스스로 특정한 성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각하는 경우도 있으며 남녀 이분법적인 성별 구분 자체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 트랜스젠더 여성·남성 이외에도 중성(gender-neutral), 양성(androgyn), 젠더 퀴어(gender queer) 등 다양한 성별정체성 범주로 표현하고 있다. (장서연 외,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4, p.8).

탕으로 한국사회에서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다양성의 인정이라는 측면에서 이들의 삶을 이해하고 유예된 이들의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성소수자 가운데서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에 국한되었음을 밝힌다.

2. 이론적 배경

2. 1 성소수자(Sexual minority) 개념

성(性)소수자란 시스젠더(Cisgender), 이성애자(Hetero sexual)를 제외한 모든 소수성을 가진 사람을 아우르는 표현이다. 시스젠더란, 자신이 깨닫고 인식한 성별과 사회에서 부여 받은 성별이 일치한다고 느끼는 사람을 말하고(Oxford Dictionary, 1990), 이성애자란 이성에게 성적 정서적 애정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즉, 성소수자란 주류와 다른 성적 지향과 성(性)정체성으로 인해 편견과 차별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사회적 소수자 집단을 말한다. 성소수자에는 LGBTQIA 즉,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ity), 트랜스젠더(Transgender), 자신의 정체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Questionary), 인터섹스(Intersex), 무성애자(Asexual), 등이 포함된다(양희선, 2017).

성소수자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성정체성(sexual identity)과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성정체성(gender identity)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의 젠더에 대한 자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 대한 사회문화적 정의와 관련된 자아의식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은 성적인 관심, 성적인 욕망이 어떤 성적 대상을 향해 있는지에 관한 자기인식을 말한다. 1980년대에는 성적 선호(sexual preference)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

는 동성애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거나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선호나 기호의 차원으로 오인(誤認)하게 한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성적지향이 한 개인의 임의적 선택이 아니라, 그 개인을 둘러싼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요인들이 매우 복잡하게 상호작용한 결과로 본다.

성적지향은 성(sex), 성정체성(gender identity), 성역할 등과 구별되는 것으로 자신의 성적지향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르다(김문조·김철규·최은정, 1999: 267-287).

2. 2 성소수자에 대한 선행연구 및 인식

동성애 합법화가 이슈로 등장하는 등 사회 곳곳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만 성소수자를 보는 다양한 시각도 여전하다. 김상학(2004: 169-206)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감정, 거리감 등을 연구했다.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 응답자가, 나이가 젊고 미혼일수록, 대도시 출신일수록, 정치사회의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동성애 관련 수강 경험이 많을수록 동성애에 대한 태도가 보다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예비교사들은 공통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자신의 편견을 인지했다고 신경희·강미옥(2014: 723-739)은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인식 확장과정에서 개인적인 편견을 기존 사회의 권력구조로 연결시켜 생각하는 예비교사들과 그렇지 않은 교사들로 나누어졌으며, 사회구조 속에 숨어있는 편견을 발견한 참여자들은 성소수자에게 가해지는 차별에 맞서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그렇지 않은 교사들은 성소수자들이 ‘정상’의 범주로 돌아와야 함을 강조하였다.

국내 상담자의 동성애혐오반응에 관한 연구에서 서영석·이정림·강재희·차주환(2007: 213-237)은 148명의 상담자들에게 동성애혐오반응을 인지, 정서적 반응, 행동의도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해서

살펴본 결과, 상담자의 내재적 종교성향과 권위주의적 성향이 강할수록 동성애자들에 대한 사고가 부정적이었고, 부정적인 정서반응 역시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상담 경력이 많은 상담자일수록 동성애자들에 대해 덜 부정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었고, 부정적인 정서반응 또한 덜 할 것으로 지각하였다. 그러나 행동적 차원의 동성애 혐오반응은 상담경력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중의 시각을 대표하는 미디어에서도, 성소수자들에 대해 어떤 시선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국내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성소수자의 재현은 실제 사회에 존재하는 것보다 적게 재현되거나, 왜곡되어 재현된다고 박지훈·이진(2013: 5-42)은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성소수자들에 대해 일부 정치권이나 보수 종교단체들은 불편한 시각을 보이고 있다. 최근 방영된 EBS의 성소수자 관련 프로그램이 일부 종교단체 등에게 항의를 받으면서 조기종영하게 되었고, 기독교학술원 원장인 김영한 박사는 유엔(1989년 이후)이 동성애를 인권범주에 넣은 것은 1948년 보편인권정신에 위배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한 성소수자 차별 금지 결의안에 찬성함으로써 유엔의 입장을 지지했다. 그러나 한국사회 내에서는 아직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2007년 발의한 ‘대한민국 차별 금지법’은 세 차례에 걸쳐 제정이 시도 되었으나, 성적지향을 포함한 몇 가지 항목을 차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반대로 2013년 법안은 철회됐다. 2014년 발의한 ‘인권교육지원법안’ 역시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한 보수단체들은 이 법안에 동성애 허용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며 반대하여 철회됐다. 김한길, 최원식 의원은 차별금지법안을 철회하거나 민홍철 의원은 ‘동성 간의 합의된 성관계’를 형사처벌 하도록 균형법을 개정하도록 제안하기도 하였다. 정치인으로서 드물게 성소수자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박원순 시장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을 바꾼 점 등은 정치인에게 미치는

성소수자 이슈의 영향력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동성애를 옳지 않다고 가르치는 것이 먼저’라며 서울학생인권조례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삭제하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고 아산정책연구원(2015)은 보고했다.

3. 영화에 나타난 성소수자에 대한 한국사회의 시각

3. 1 동성애자 : 영화 <불온한 당신>

영화 <불온한 당신>은 존재를 지우려고 하는 사람들에 맞서 존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삶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공존과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담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다. 다양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하는 시대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성소수자로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쉽지만은 않다. 사회의 통념에 온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오랜 시간을 ‘불온(不穩)’의 편견에 시달려야만 했을 그들의 이야기, 영화 <불온한 당신>은 성(性)이라는 주제를 넘어 우리 안에 자리한 ‘혐오’와 ‘차별’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깔끔하게 정리된 집에 사는 70대 어르신. 꼼꼼하게 면도를 끝내고 집을 나서면, 가는 곳마다 믿고 따르는 동생들이 많은 이 형님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다.

“사람들은 내가 남자인 줄 안다니까. 절대 여자라고 생각 안 해요”

자신의 성(性)을 스스로 선택하고 70평생을 남자로 살아 온 사람 ‘이목’ 하지만 한 번도 자신의 선택에 대한 미련이나 후회를 가져 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7~8살 때였을 거야. 이상하게 어려서부터 나는 여자가 아니라는 걸 마음에 각오한 거 같아. 왜냐하면 여자가 좋아. 예쁘고 좋아”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 속에서도 절대 뒤로 숨는 법이 없었던 그의 삶. <불온한 당신>은 70평생 자신의 선택을 지키며 살아온 성소수자의 삶과 그의 이야기를 통해 편견에 시달려야만 했을 우리사회의 성소수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하며,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혐오가 만연해지고 있는 세상에 공존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온 바지씨(이목)²⁾, 분명 존재하지만 존재 자체를 부정당해야 했던 사람. 그들의 모습은 우리의 생각처럼 ‘불온’ 할까?

단일민족 국가임을 강조하는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의 존재는 가부장적, 이성애적 이데올로기에 반대되는 위협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단일성(homogeneity)을 강조하며 주류 문화가 비주류 문화를 억압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한국사회는 주류집단과 다른 비주류집단의 생각을 배제하는 획일화된 사고와 문화를 오랫동안 지켜왔으며, 해방 후 기독교적 사상이 전통적 유교주의 문화와 결합됨으로써 우리사회에서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는 구조와 이를 금기시하는 문화가 더욱 강화되었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동성애자들은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철저히 숨긴 채 살아 가야 했으며 만약 동성애자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무수한 사회적 차별과 억압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신경희·강미옥(2014: 723-739)은 언급했다.

영화 <불온한 당신>은 세상의 눈에는 불온한 삶을 살아왔지만 자신의 선택 앞에 당당한 동성애자들을 그린, 성소수자에 대한 부르는 이름조차 없었던 노년세대를 발굴하고 성소수자의 존재를 여전히 혐오하고 부인하는 지금의 시대를 기록하고 있다.

2) 바지씨: 당시 성소수자들이 사용하던 은어로 남성성의 매력을 풍기는 이들을 특정 의상에 빗대어 지칭한 말

이영감독은 퀴어 대담(2017)에서 영화제작시 반대자들 즉, 혐오 세력들에 의한 감시를 받아야만 했으며 취재를 거부당하기도 했고, 성소수자들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거짓된 주장들을 할 것을 요구받 으며, 협박을 당하면서도 취재를 위해 항의 할 수 없었던 점이 고통스러웠다고 했다. 성소수자들에게 인권은 곧 목숨이다. 아산정책 연구원의 보고(2015)에 따르면, 한국인은 다른 소수자 인권에 비해 성소수자 인권문제에 대해 아직 뚜렷한 입장이 없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성소수자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모름/무응답’으로 평가를 유보한 비율은 28.3%나 되었는데 이것은 여성, 노인 인권문제에 대해 평가를 유보한 비율에 비해 4~5배나 높은 수치라고 한다.

영화에서도 혐오세력들의 공격을 보여주는데 ‘혐오’와 ‘차별’이라는 것이 어떤 폭력인지를, 삶과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겪을 두려움이 어떠한지를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다. ‘혐오’와 ‘차별’에 대한 폭력은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 견디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 ‘한국 LGBTI 사회적 욕구조사(2013)’에서 레즈비언은 76.7%가 자신이 레즈비언이란 점을 긍정적으로 느낀다고 응답하면서도 차별과 폭력을 해결할 방향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성원(2016)은 이런 연구 결과를 감안하면 위협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여성 동성애자들이 개인 수준의 긍정적 정체성의 대처 자원으로 활용하여 문제해결 중심 대처를 할 가능성이 남성 동성애자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즉, 여성 동성애자들이 직면한 스트레스가 불안정한 사회경제적 지위, 여성 성소수자로서 소수자 집단 안팎으로 경험하는 폭력 등과 같이 개인적인 수준에서 해결 방안이 없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스트레스일 수 있다.

영화에서는 개인과 광장, 한국과 일본, 다양한 계층, 다양한 공간들 등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점점이 쌓여가면서 영화가 만들어 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혐오’라고 하는 것과 맞물려

‘혐오’가 성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에게 행해지는 일부의 이야기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이러한 설정은 ‘혐오’의 영역이 일반인들이나, 혐오와는 상관없다고 여겨지던 사람들에게 까지 확장되어가는 과정들을 보여주고자 함이라고 이영감독은 말했다. 또한 이것은 이 영화 안에서 개인과 사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사회영향력이 어떻게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지를 표현하고 있고, ‘혐오’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회적으로 공개 되어가는 상황에서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한다.

3. 2 트랜스젠더 : 영화 <꿈의 제인>

어디에도 받아들여지지 못한 소녀 ‘소현’과 누구와도 함께 하길 원하는 미스터리한 여인 ‘제인’의 특별한 만남을 그린 <꿈의 제인>은 사회적소수자를 향한 감독의 애정 어린 시선을 담고 있으며, 꿈과 현실을 오가는 영화적 체험을 선사하는 작품이다. 버려지는 게 두려워 걸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림자처럼 맞춤형 인간으로 살아가는 ‘소현’과 미스터리 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트랜스젠더 ‘제인’, 말하는 것보다 듣고 생각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느끼게 해준다. 영화 <꿈의 제인>은 제인의 입을 빌려 모두에게 격려와 위로를 전하고자 한다. 특히,

“이런 게 같은 인생 혼자 살아서 뭐하니. 그래서 다 같이 사는 거야. 우리 죽지 말고 오래오래 불행하게 살아요.” -제인

라는 말처럼 얼핏 삶을 향한 자조처럼 보이는 대사들은 삶이라는 끈을 홀로 힘겹게 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함께 살자’는 메시지를 전하며 그들의 삶에 격려를 보낸다. 영화 속에서 제인은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가령 가출팸들이 모여서

케이크를 먹는 장면에서도 똑같이 나눠먹던가 모두가 먹지 않던가 하라는 이야기를 한다. 혼자만의 세상에서 벗어나 사람들 속으로 다가가고 싶어 하는 소현, 그러나 다가가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던 소현은 제인을 통하여 ‘함께’ 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

우리사회에서 트랜스젠더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경계인, 어릴 때부터 당했을 주변에서의 따돌림, 상처가 많지만 그 상처를 견뎌야만 하는 이미지로 떠오를 것이다. 그러나 영화에서는 보호받아야 할 한 개인을 향한 트랜스젠더의 관심과 사랑이 오히려 우리로 대변되는 ‘소현’을 성장하게 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반성적 사고를 갖게 하고 동시에, 성소수자는 치료의 대상도 아니고, 서구의 산물이거나 시혜적으로 돌봐야 할 존재도 아니며, 성소수자나 비성소수자를 막론하고 모두 다양성을 가진 동등한 인간이라는 점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보여 진다.

이호림 외(2015: 64-94)는 트랜스젠더 정체성은 동성애와 마찬가지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신질환이 아니다. 오히려 트랜스젠더에게 필요한 의료적 지원은 성별 위화감의 정도와 주변 환경 등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호르몬 요법, 수술 등 의료적 조치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것임에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진의 이해 부족과 사회보장제도의 미비로 이러한 의료 접근권이 사실상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인간의 성별이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적 특징에 따라 정해진다는 믿음, 성별이 남/여 두 가지만 존재한다는 믿음, 성별 이분법에 기초한 이러한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 다양한 성별을 가진 개인들이 그 자체로서 존중받을 때, 우리 사회에서 보다 많은 트랜스젠더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제인과 소현은 정우라는 같은 인물을 만나려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둘은 정우가 일하고 있는 ‘뉴월드’ 라는 공간을 찾아가게 되는데, 처음에 찾아갔을 때 ‘뉴월드’ 는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처리되어 나온다. 하지만 극의 후반부 제인의 죽음 후 소현 혼

자 찾아 갔을 때는 화려한 조명을 보이며 왕성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장면으로 바뀌어서 보여 준다. ‘뉴월드’는 어쩌면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이 꿈꾸는 ‘새로운 세상’이 아닌가 여겨지며, 또한 성소수자인 제인이 하나의 인간으로 인정받고자 했으나 거부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인의 부재와 대비되어 우리사회의 모순과 편견의 민낯을 보여주고자 함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자신이 일하는 클럽에 언제든지 출입을 허한다는 스탬프를 소현의 팔목에다 찍어 주는 장면은 인상적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스탬프에 쓰인 글자는 ‘UNHAPPY’이다. 우리는 스탬프와 관련된 이론을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바로 ‘낙인이론’이 그것이다. 사회에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인격체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유린당한 채 살아가야하는 사회적소수자들, 특히 성소수자들은 ‘UNHAPPY’와 같은 스탬프를 하나씩 가슴에 찍힌 채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4. 성소수자에 대한 수용성 제고

4.1 담론

문화다양성수용은 인식과 태도의 문제이고,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담론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가 문화적 다양성을 가진 동등한 존재이며,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시민권을 보장해야 할 사회구성원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이러한 변화는 성소수자 운동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성소수자들은 낙인된 타자로 규정당해 온 억압의 역사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대표하면서 인간 성정체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존하자는 운동을 벌여 나가고 있다.

본고에서 선정한 영화 ‘불온한 당신’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영화는 2013년 제작되었으나 반대세력으로 인하여

상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성소수자 운동과 시대의 변화에 따른 인식의 전환과 함께 2016년에는 올해의 여성영화인 다큐멘타리상, 제7회 DMZ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한국경쟁부문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하였고, 2017년 올해의 독립영화로 선정되었다. 또한 세계 21개 영화제에 초청되기도 하였다. 영화 ‘꿈의 제인’은 영화계 평단과 언론, 관객들의 열렬한 지지를 이끌어내며 각종 SNS를 통해 팬덤까지 형성시키며 제42회 서울독립영화제 관객상과 함께 한국영화기자협회 기자들이 직접 선정하고 시상하는 제9회 올해의 독립영화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이처럼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식과 편견은 과거에 비해 진일보하였지만, 여전히 보수적인 편견의 시각은 세상 곳곳에 가득 차 있다. 사람들은 사회적 편견 속에서 게이와 레즈비언 같은 사회적소수자들과의 연대가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를 더 위협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사회적 수치심을 갖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 사회적소수자들의 열린 마음과 솔직한 마음의 표현을 통해 다문화와 문화다양성에 살고 있는 지금은 서로를 받아들이고 신뢰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들의 삶이지만, 언젠가 나의 삶이 될 수 있고, 모든 삶은 누구에게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James A. Banks(2016: 57)에 의하면 다양성이란 다문화 국가 안에서 살고 있는 집단들의 내부 및 집단 간에 존재하는 인종, 문화, 민족, 언어, 종교의 광범위한 편차를 나타낸다는 것이기 때문에 인종, 성, 사회계층, 종교와 같은 다양한 변수들은 복잡한 양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고 상호작용성과 상호관련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공동체적 연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였다.

우리사회의 성소수자들을 위한 문화다양성 수용성제고를 위한 담론으로 ‘차별금지’나 ‘성정체성 인정’의 문제를 아우를 수 있는 ‘구성권(membership)’을 고려해 보았다. 이용승(2014: 197-8)은 ‘구성권(membership)’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원들의 법적 지위와는 일정 무관하게,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마땅히 인정되고 부여받아야 하는 권리와 지위, 그리고 그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정체성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4.2 교육

차별은 결국 교육의 문제다. 모경환(2009: 245-270), 차경수·조대훈(2012)은 다문화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의 역할이라고 하였다. 교사는 교육과정을 통해 조직된 교과 내용을 그대로 학생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만 취하지 않는다. 자신의 교육학적 지식과 경험을 함께 섞어 새로운 교수법적 지식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고 교육과정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에서 교사는 공식적,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의 소수자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교사의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와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조대훈(2006: 211-241)은 밝히고 있다. 구정화(2013: 31-53)는 초등 교사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연구를 통해 그들이 인식하는 사회적 소수자가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빈곤층 등으로 매우 범주가 좁다는 것을 알려준다. 따라서 교사의 소수자에 대한 인식 범위를 넓혀 줄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영화에서는 성소수자들이 감염인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격리되어야 할 존재로 비취지고 있다. 더불어 살아가야하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교육받지 못했다. 그 예로 서울시교육청, 성북구청에서 인권선언문제를 정할 무렵에 반대세력의 저항과 부딪히는 장면이 보여 지는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인권선언문에 포함되어있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는 명시이다. 조대훈(2011: 205-237)은 동성애에 대한 고등학교 사회과 교사들의 교수적 태도를 측정하였다. 동성애에 대한 교수적 태도는 권위주의 성향, 성차(sex difference), 동성애 지인

의 존재 여부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교사의 다문화에 대한 접촉과 경험이 교사의 다문화 교수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한동균(2009)은 소수자 교육은 학생들의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해소함으로써 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다고 하였다.

한국의 다문화교육은 대체로 부가적 접근법에 가깝다. 부가적 접근법은 “교육과정의 기본적 구조 및 목적의 변화 없이 종종 책, 단원 또는 교육과정을 수업에 첨가시키는 방식” (Banks, 2011: 294)이다.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이 부가적 접근 이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차별, 반편견의 견지에서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평가, 평가에 기초한 교육과정 변경이 진행되어야 하고, 지식을 구체적인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승용(2016)은 다문화수용성이 지식과 실천을 포괄하는 개념인 만큼, 공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교육에는 학생들의 실천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을 위한 교육이 학교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학교와 함께 기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 가정일 것이다. 이승용(2016: 22)은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내면화한 부모의 경우 자녀의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충격을 받으며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성소수자 청소년들은 세상이 모두 등을 돌려도 반드시 곁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공간인 가족 안에서도 언제나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고민과 긴장을 경험한다. 일반적으로 가족이 “자신과 가장 가깝고 신뢰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가족은 가장 자기 모습 그대로,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마주하고 싶은 대상”이다. 김지혜 외(2016: 33)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가족은 “가장 먼저 자신을 알리고 싶은 대상”이면서도 동시에 “커밍아웃하기 가장 어려운 대상”이기도 하다고 했다. ‘꿈의 제인’에서 주인공 제인은 가족이 없다. 그녀는 가출청소년들과 함께 생활하며

자신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기를 자청한다. 그들이 함께하는 그 공간만큼은 제인이 꿈꾸는 완벽한 세상이 된다.

성소수자 청소년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가족과 같은 친밀한 대상에게 인정받거나 지지받지 못하게 되면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삶의 희망을 상실할 수도 있다. 강병철(2006: 22)은 이러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은 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했다. 더불어 미국의 경우 “상당히 많은 수의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가족으로부터 언어적, 신체적, 성적 학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된 바 있음을 강병철(2006: 38)은 언급했다. 따라서 학교교육과 함께 가정에서의 교육을 위한 부모와 가족 전체의 교육까지 포함한 대안이 요구 된다고 본다.

4.3 법·정책

사회적소수자 집단에 대한 거리감은 사회적소수자 집단에 대한 편견, 보수 혹은 진보적 성향과 같은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받는다(구정화, 2013: 31-53). 김상학(2004: 169-287)은 인구학적 특징 혹은 가족적 배경보다는 정치적 성향이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영화에서도 ‘불온’이라는 딱지가 대중을 선동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가 됐다. 반대세력들은 ‘불온’을 좌파로 규정하며 증오의 대상으로 생각한다. 증오의 대상이 소수자나 약자일 경우에는 전이가 더욱 쉬어진다.

따라서 소수자를 보호하는 지원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누가 소수자인지를 규정하고, 그들의 삶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소수자를 특정하는 즉시 소수자는 타자화 혹은 대상화 될 수밖에 없고,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낳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세월호와 관련한 장면에서는 ‘애도를 강요하지 말라’는 혐오세력의 말과 함께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지내라’는 이야기들이 성소수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공공장소에 함부로 나오지 말라’는

언설과 겹치는 순간, 세월호 참사 이슈가 어떻게 보면 퀴어 정치학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이슈가 되는 장면이 영화 속에서 만들어진다. 한국은 인권과 관련된 여러 국제조약을 비준한 상태이며³⁾ 그러한 조약들에서는 차별금지의 원칙을 조약의 기본원리로 삼고 있다. 정부는 이미 비준한 각종 국제인권조약의 실현을 위하여 국내에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차별사례집 모음집(2011: 38)에서는 각종 국제조약 및 기구에서는 권고를 통하여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해왔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된 것)은 19가지의 차별금지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차별금지사유로 ‘성정체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트랜스젠더는 이름과 성별의 변경 및 혼인에 관한 권리의 보장으로 이미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존재하는 한 트랜스젠더는 여전히 차별의 대상(이준일, 2009: 148)이 될 수밖에 없다. ‘꿈의 제인’에서 주인공 제인은 ‘태어날 때부터 불행이 시작되고 그 불행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기분’이라고 말한다. 성소수자들은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이들의 성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 따라서 성정체성은 성별이나 장애 또는 성적지향과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성정체성’이라는 명시적인 차별금지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3)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다자조약 제1006호, 대한민국 적용일 1990. 07. 10);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다자조약 제1007호, 대한민국 적용일 1990. 07. 10);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다자조약 제855호, 대한민국 적용일 1985. 01. 26);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RC)」(다자조약 제1072호, 대한민국 적용일 1991. 12. 20);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AT)」(다자조약 제1272호, 대한민국 적용일 1995. 02. 08)

4.4 종교

퀴어 축제나 성소수자들의 집회 때마다 종교인들과의 마찰을 종종 접할 수 있다. 앞서 보았던 영화 <불온한 당신>에서도 그러한 장면들이 보여 진다. 성소수자와 종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김상학(2004: 169-206)은 종교적 성향을 불교, 기독교, 천주교, 기타, 종교 없음으로 두고 각 종교적 성향에 따른 소수자 집단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기독교가 자신의 종교라고 답한 응답자가 다른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비해 동성애자에 대해 유난히 거리감이 높음을 보여준다. 영화에서도 공청회와 퀴어문화축제 장면들에서부터는 작품의 ‘또 다른 주인공’ 들인 각종 우익/종교단체가 등장한다. ‘이 땅은 하나님 땅이야! 안돼! 예수그리스도의 땅이야!’ 라고 하며 땅에 드리눅는 장면들이 보여 진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를 믿는 여부 혹은 종교의 종류가 아니라 해당 종교에 대하여 개인이 갖는 몰입도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을 하였는데, 이는 조대훈(2011: 205-237)의 연구에서 더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다. 조대훈(2011: 205-237)의 연구는 단순히 종교 유무나 종교의 종류가 아니라, 종교의 내현적, 외현적 성향을 변인으로 두고 조사하였다.⁴⁾ 내현적 종교 성향이 높을수록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을(서영석 외, 2006: 213-237, 조대훈, 2011: 205-237)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은 성소수자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갖지 못한 채 종교적인 이유에서 동성애는 신에 대한 범죄이며 건강한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병리현상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2012년 설문조사에서 종교학교의 목사 및 종교 수업, 혹은 기독교인 교사의 혐오발언은 반복적으로 보고되었다. 예컨대 종교수업

4) 내현적 종교 성향은 종교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생각하고 종교에 충실한 삶을 사는 태도를 말한다. 이에 반해 외현적 성향은 종교를 수단으로 삼아서 종교에서 물질적 혹은 정신적 가치를 얻기 위해 종교를 가지는 태도를 말한다(조대훈, 2011).

에서 “동성애는 더러운 행위이며 죄악” 이라고 가르치거나, 학생이 “레즈비언이 뭐 멋졌냐. 물었을 때 교사가 “성경에서 금지했으니 안 된다” 고 대답하기도 하며, 한 기독교인 영어교사는 “동성애자들은 죄악이고 신께 버림받은 존재” 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반스쿨팀(2012: 6)은 이처럼 학교 현장에는 기독교 신앙에 기초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비난과 비하, 혐오를 여과 없이 표출하는 교사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성서의 내용을 현대적 시대상황에 맞추어 다르게 해석하기도 한다. 향린교회 부목사 고상균은 ‘동성애는 죄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성서 역시 그 시대의 산물이다. 우리가 지금시대에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 일정부분의 해석을 가진 필터링’ 이 필요하다고 했다. 예수의 말씀이라고 알려진 복음서에서는 동성 관계 문제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3세기부터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의 성 습관을 비난했고(이승민·이진화 역, 2016: 36-37) 이것은 기독교가 동성애를 혐오하는 밑거름이 됐다고 J Bosewell(1980: 37-38)은 밝히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비판은 오늘날의 동성애 혐오와 완전히 다르다. 또한 ‘자연의 이치에 따른’ 성교를 신이 정한 질서로 여기고 숭고한 모범으로 보았으며, ‘자식을 낳는 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것은 모두 자연을 더럽히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현대적 의미의 동성애 혐오와는 달랐고, 단지 그 시대의 기독교에 권력을 안겨준 시대의 특수한 물질적 조건이 낳은 결과였다. 아시리아 법률에 있는 ‘자연의 이치를 거슬러 교접하는 자’ 같은 막연한 문구는 동성애 뿐 만 아니라 생식과 관계없는 모든 성관계를 심각하게 비난했던 것이다.

5. 결론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성소수자들을 바라

보는 시각은 어떠한지, 이들에 대한 수용성 제고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교육, 법·정책 그리고 종교적인 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성소수자의 경우, 우리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해 왔던 남성 중심주의 문화에서 여성과 함께 ‘성적 약자’로 간주될 수 있다. 우리사회는 아직 ‘이성애주의’가 지배적 규범으로 간주되는 사회이다. 하지만 이성애주의는 남성 중심의 사회에 의해서 규정되는 사회적 규범으로 이것은 남성 지배를 강화하는 근거가 된다(조대훈, 2011:205-237). 동성애 논의 자체가 터부시되는 이와 같은 현상은 한국사회가 극단적이고 노골적인 형태의 동성애 혐오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육 담론에서 성소수자 문제를 포함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사회구성원들의 인식변화에 도전을 주는 일이다.

그러나 교육개혁에 관한 쟁점에서 최근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화두는 인권교육이다. 인권은 사회의 주류에게만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신경희·강미옥(2014: 723-739)은 교사들은 소수자에 대한 인식변화와 수용능력을 함양하도록 변화의 계기와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성별, 장애, 인종 문제등과는 달리 성소수자 이슈는 반차별 인권교육에서도 배제되는 주제이고, 인권교육을 다루는 책자에서도 성소수자라는 단어는 찾기 쉽지 않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일탈적 낙인과 폭력은 학교 울타리 안에서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여전히 이 사회는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를 ‘불편한 존재’로 여긴다. 하지만 이들은 ‘불편한 존재’가 아닌 우리의 ‘친구’이자 ‘이웃’이다.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높이고, 성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무지로 인해 인정받지 못한 인권과 그들의 삶을 보장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다문화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과제이다. 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실천적인 교육, 법, 제도, 정책이 요구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강병철(2006). 청소년 성소수자의 생활실태 조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구정화(2013). 초등 교사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연구, <시민교육연구> 45권 3호, 한국사회과교육학회. 31쪽~53쪽.
- 김상학(2004).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사회연구> 1권 7호, 한국사회조사연구소. 169쪽~206쪽.
- 김지윤·봉영식·강충구·이지형(2015). 한국 유권자와 이슈Ⅲ: 성소수자(LGBT) 인식. 2015-04.
- 김지혜 외(2016). Q로 만드는 울타리-청소년 성소수자 인권 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보고서, <청소년성소수자 위기지원 센터 땡땡>. 33쪽.
- 모경환(2009). 다문화 교사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교원교육연구> 26권 4호, 한국교원연구학회. 245쪽~270쪽.
- 박지훈·이진(2013). 성소수자에 대한 미디어의 시선: 텔레비전에 나타난 홍석천과 하리수의 이미지 유형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28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16쪽~42쪽.
- 서영석·이정림·강재희·차주환(2007). 상담자의 동성애혐오 반응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권 2호, 한국심리학회. 213쪽~237쪽.
- 신경희·강미옥(2014). 성소수자에 대한 예비교사의 인식변화 연구, <교사교육연구> 53권 4호, 부산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723쪽~739쪽.
- 이성원(2016). 성소수자(LGB)의 공동체 의식, 긍정적 정체성과 정신적 웰빙 간의 관계: 소수자 스트레스 대처 전략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용승(2014). 다문화시대의 시민권 아포리아, <한국정치학> 48권 5호, 한국정치학회. 185쪽~206쪽.

- 이용승(2016). 다문화수용성 제고, 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대사회와 다문화> 6권 1호,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1쪽~26쪽.
- 이준일(2009). 섹슈얼리티와 법. 서울: 세창출판사.
- 이호림 외(2015). 한국 트랜스젠더 의료접근성에 대한 시론, <보건사회연구> 35권 4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4쪽~94쪽.
- 양희선(2017). 상담자의 성소수자 상담 경험에 관한 합의적 질적 연구. 한국상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대훈(2006). 침묵의 교육과정을 넘어서: 성적 소수자의 인권과 사회교육, <시민교육연구> 38권 3호,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11쪽~241쪽.
- 조대훈(2011). 동성애에 대한 교수적 태도의 영향 변인 연구 : 다문화교육과 교사교육에 대한 시사점. <시민교육연구> 43권 1호,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5쪽~237쪽.
- 차경수·조대훈(2012). 사회과교육의 도전과 전망. 서울: 동문사
- 한동균(2009). 다문화사회에서 소수자교육의 의미와 접근법: 차이의 지리학적 접근과 관련하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이반스쿨팀(2012). <2012년 서울시 성소수자학생인권실태조사 설문결과 보고서(미간행)>.
-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 연구회(2013). 한국 LGBT 사회적욕구조사.
- 차별사례집 모음팀(2011). 학교내 성적소수자 차별 사례 모음집(미간행).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38쪽.
- James A. Banks. 모경환 외(2016). 다문화교육 입문. 아카데미프레스. 57쪽.
- J Boswell(1980). Christianity, Social Tolerance and Homosexuality. Chicago.
- Norah Carlin(1995). The roots of gay oppression, International

Socialism 42(Spring, 1989) & Colin Wilson, Socialists and Gay Liberation(Bookmarks, 1995). 이승민·이진화 역. 동성애 혐오의 원인과 해방의 전망. 서울: 책갈피.
<불온한 당신>(Troublers, 2015). 한국. 감독: 이영. 출연: 이묵·논·텐.
<꿈의 제인>(Jane, 2016). 한국. 감독: 조현훈. 출연: 이민지(소현)·구교환(제인).

필자 소개

성 명 : 노승인
소 속 :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박사과정
전자우편 : nsi3139@naver.com

투고일: 2018. 1. 25 / 심사일: 2018. 2.1. / 심사완료일: 2018. 2. 8